

# 발빠른 '민생챙기기' 올인

### 군산시의회, 간담회 열고 현안 해결방안 모색 주요시설 돌며, 전반적 사항점검·애로 청취

군산시의회가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통해 본격적인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시의회는 제225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 실태와 해빙기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지난 11일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조경수)는 현장방문에 앞서 건물 노후화로 환경이 열악한 대한노인회 군산지회 노인회관 신축사업 위치 선정 간담회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노인복지공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애로사항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은과 수변산책로와 비응항 주변 해양체험 편익시설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애로사항 청취와 함께 주요시설을 돌아보며, 시설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사

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행복위 의원들은 비응항이 전국에서 인정받는 해양레저의 관광지로 우뚝 설수 있도록 해양관광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경수 행정복지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관광산업이 크게 위축되었다"며 "철저한 군산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안전하고 다양한 체험공간은 물론 관광지 내 자연경관과 포토존을 연결한 연계코스를 개발하는 등 관광기반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신영자)도 4월 말에 개최하는 제15회 군산 풍당대리 축제와 관련해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사태로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다며 주민소득 창출 및 군산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해신동·소룡동 사업현장을 방문해 사업현황을 청취하고 원도심 일대의 도시재생관련 주요 거점을 둘러보며 다양한 의견과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경제건설 위원들은 '해신동은 해마굴과 수산물센터를 연계한 거점 개발을 통해 기존 도시재생선도지역과 주변 네트워크화를 추진해야 하며, 소룡동은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복지를 위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영자 경제건설위원장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도시 경쟁력 회복과 주거복지 실현은 물론 일자리 정책과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추진 등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의회 3개 상임위원회가 제223회 임시회 기간동안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위원회 소관 현장을 돌아보며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 발로 뛰는 현장행정 돈보여

### 익산시의회 상임위, 수송충전소 설치 대상지 등 방문

익산시의회 3개 상임위원회가 제223회 임시회 기간동안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위원회 소관 현장을 돌아보며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2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임시회 심의 안건들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익산시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자 관련 현장을 찾았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유재우)는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 요청에 따라 석안동 소재 수송충전소 설치 대상지와 주변동 소재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를 방문했다. 위원들은 사업대상지 및 사업 현황 등을 세심히 점검하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 군산의료원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자 44명 입원

### 강임준 시장 "위기극복 한마음" 관리되고 있다.

강임준 시장은 "전염병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겠지만 남은 것은 위기에 대처했던 우리의 모습일 것"이라며 "코로나19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재난이므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패유를 바라는 응원과 배려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선별진료소와 병원에서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치료에 헌신하는 의사와 간호사에게, 잠도 제대로 못자고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직원에게, 하지만 더 위대하게는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어 매사 조심스럽게 생활해주고 계시는 시민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군산=김정훈 기자

## '배달의 명수' 경제 회생 새바람 주목

### 군산시, 지자체 첫 공공 앱 출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군산시에서 시행하는 공공 앱 '배달의 명수'가 출시돼 군산사랑상품권과 함께 경제 활성화의 효자 역할을 할지 주목받고 있다.

시는 야구명문인 역전의 명수 군산 상고에서 이름을 딴 '배달의 명수'로 군산시민과 함께 지역사랑의 마음을 담아 '경제야 날아라'는 비전아래 경제회생의 역전호른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날 출시와 더불어 강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

격리자 대상자들이 배출하는 쓰레기 수거와 소각으로 연일 고생하고 있는 직영미화원들에게 배달의 명수로 직접 격려물품(치킨)을 주문해 전달했다.

수송동에 위치한 치킨점 사장님 A씨는 "사장님 어플 주문 알뜰음인 '명수야 흥!' 처럼 코로나19와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에 광고료와 수수료 없는 배달의 명수가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 시민분들이 배달의 명수를 많이 이용해 함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배달의 명수는 가맹점의 마음과 소



비자의 마음을 담은 심심할인(마음과 마음을 더해 혜택이 두배로) 혜택으로 사용자들의 관심을 유도할 예정이다.

출시 후 배달의 명수에서 주문하는 소비자에게는 500명에게 2,000원을 할인해주고, 사업주들의 마음을 담은 즉시 할인쿠폰과 무료배송, 군산시 SNS를 통한 인증샷 이벤트 등 다채로운 할인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 익산시, 코로나19 집단 감염 위험지역 집중 방역

### 콜센터 4곳... PC방 등 점검

익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집단 감염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집중 방역을 실시한다.

12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콜센터 4곳에 대해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긴급 방역을 실시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발열체크 등 증상 유무를 확인했다. 또 콜센터 내부

를 수시로 자체 방역할 수 있도록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했다.

시는 콜센터 감염병 차단을 위해 자체 방역 대책과 재택근무 실시,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직원에게는 유급휴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각 콜센터에 요청할 예정이다.

현재 지역에는 시 지역 민원콜센터 1곳을 포함해 모두 4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106명이 근무하고 있다.

시는 아울러 개화 연기로 많은 학생

들이 방문하고 있는 PC방과 노래연습장, 영화관 등에 대한 방역실태 일제 점검을 오는 13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노래연습장 175곳, PC방 185곳, 영화관 2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는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밀접접촉 제한 거리 확보 등 예방수칙 준수 여부와 사업장 자체 방역실태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익산=정양원 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시, 재정 집행 총력

군산시는 윤동욱 부시장 주재로 12일 재정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의 조기 극복과 시민안정을 위해 모든 부서에서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집행은 지역경제과급 효과가 크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과 소비·투자부분에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소비투자 부분의 경우, 현재 1분기 목표액 997억원중 647억원을 집행해 65%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다.

이번, 재정 신속집행 점검 보고회는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주기적인 집행상황 모니터링과 부진사업에 대해 점검 분석하고 재정 신속집행을 위한 해결방안과 집행율이 높은 우수부서의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재정 집행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긴급임차제도, △선급금 집행 활성화, △계약 관련 심사 기간 단축, △대가지급 기한 단축 등 신속집행 지침을 적극 활용해 집행에 가속도를 내기로 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군산시, 청년 창업가 모집

군산시가 혁신적인 청년창업가를 양성하기 위해 '청년창업 희망기움사업(3기)'에 참여할 청년(예비)창업가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창업초기 어려움을 해소해 창업정착율을 높이고 창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차 지원금 500만원과 창업활동비 매월 100만원씩 최대 24개월을 지원한다.

특히 매월 지급되는 창업활동비는 임차료, 인건비 등 창업초기 일정 매출이 발생하기 전까지 겪을 수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안정적인 창업기업 정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선발된 청년은 군산시 청년뜰에서 준비한 '군산청년 창업캠퍼스' 프로그램에 참여해 전문가의 교육과 멘토링, 후속 관리까지 원스톱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